일 주 문



호국사자사 낙성법회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이천 특수전사령부 호국사자사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2016 전문포교사 연수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11월 5~6일 화성 신흥사 수련원서 '2016 전문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자 위로법회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은 11월 4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출판공로상 수상

김명환 불광출판사 제작부장은 10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제30회 책의날 기념식'서 한국출판공로상을 수상했다.



캄보디아에 통학용 자전거 선물

로터스월드 · 세상을향기롭게, 10월 24일 기증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는 10월 24일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서 통학용 자전거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상을향기롭게가 자전거 후원 의사를 밝히며 로터스월드에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 로터스월드가 자전거 300대를 마련하며 성사됐다.

성관 스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자비, 즉 베푸는 행동이다. 이를 통해 서로 무한한 기쁨을 느끼며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할 방향"이라며 "몸소 베품을 실천해 준 세상을향기롭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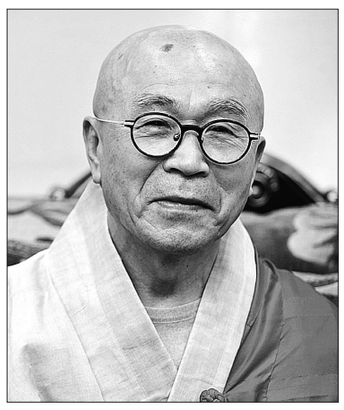
또한 정여 스님은 "성관 스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나마 돕게 돼 기쁘다. 지역사회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통학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기증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더욱 학업에 집중해 이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자전거 수혜 대상자인 스은 트라는 "자전거가 없어서 학교에 가려면 1시간을 걸어야 했다.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로터스월드와 자전거를 선물해 준 세상을향기롭게에 정말 감사하다"며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 **박아름 기자**

"승가 참회, 화합 종단 만들 터"

Interview

태고종 원융포럼 회장 혜일 스님



10월 25일 창립…100명 동참

승가청정 · 좌표 제시 기치

매월 한 차례 대중공사 개최

"종단의 승가청정 운동을 전개하고 현실에 맞는 발전방향을 연구 ·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태고종 스님들과 종도로 구성된 '원융포럼'이 10월 25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됐다. 원융포럼은 태고종 종단 사태의 아픔을 극복하고 종단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모임이다.

원융포럼 회장 혜일 스님〈사진〉은 포럼 창립 배경에 대해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어지러움과 종단의 어리석음을 살피고, 지금의 사태가 왜 생겼는지 고뇌했다"며 "그 해결책은 승가청정이라는데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이 모여 승가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난 혜일 스님은 서귀포 구룡사서 출가해 덕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1년 서울 법륜사서 정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75년 서울 봉원사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재무부장과 중앙선관위원장 등 종단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에게 태고종 폭력사태는 포럼을 구상하게 된 하나의 계기였다. 태고종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종단 폭력 사건과 총무원장 구속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은 바 있다.

혜일 스님은 이 같은 사태의 근본원인이 '불통'이라고 봤다. 스님은 "그동안 종단사태는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했다. 모든 지도자들은 소통에 앞장서야 한다. 스님들도 지도자"라며 "항상 수행정진하며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점에서 태고종 내 참회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단 좌표를 만드는 데 스님과 신도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융포럼은 향후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단정책 연구 작업과 토론회 등을 매월 한차례씩 연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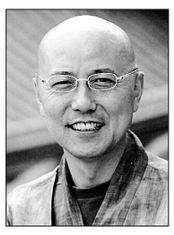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해야할 승가의 모습조차도 속세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압니다."

혜일 스님은 "우리가 초래한 위험과 잘못을 알기에 뼈를 깎는 참회 속에 출가수행의 결연한 의지를 굳건히 다진다"며 "청정한 범행 실천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원로의장 덕화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성오, 탄해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소외계층 주목하는 매체로"

불교공뉴스 6주년 맞은 혜철 스님



"지난 6년의 세월 간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전국의 미담을 발굴하고, 사회 소외계층을 주목하는 기사를 양산하는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 · 사진)가 주축이 된 인터넷신문 '불교공뉴스'가 창간 6주년을 맞아 10월 28일 옥천군 명가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불교공뉴스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종합 인터넷신문이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혜철 스님은 "인터넷매체의 범람 속에 특화된 신문을 만들기 위해 현장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민들의 작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취급하고, 도농교류 및 먹거리 홍보, 종교화합 등에 앞장서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최근의 트렌드는 독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옥천성모병원 등에 상호봉사 및 회원 혜택 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구인구직 홍보 무료대행 등 다양한 역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불교공뉴스는 이날 기념식에서 불교공뉴스TV를 정식으로 개국했다. 불교공뉴스TV는 2011년부터 5년간 시험방송을 해왔다. 불교공뉴스TV에는 혜철 스님과 전문작가, 카메라 감독이 불자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는 프로그램인 '힐링대담'이 방영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앙 · 지역 청년불자 화합 앞장"

제29대 대불청 중앙회장 김성권 씨 당선



"지역서 오랫동안 청년불자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을 두루 아우르겠습니다."

제29대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에 김성권 前전북지구회장(46 · 홍법 · 사진)이 당선됐다. 김 씨는 10월 23일 열린 대불청 제66차 임시 대의원총회서 54표 중 52표를 얻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김 당선자는 정책공약으로 △중앙과 지역을 두루 아우르는 중앙회장 △미래세대위원회 발족 △중앙집권적 리더십에서 분권적 리더십으로 △교육 · 신행 강화 △대불청 100주년 사업회 △만해문학관 설립을 내세웠다.

김 당선자는 신행결사와 발전기금 모연에 대해 "첫 해는 전 회원 대상으로 CMS를 확충하면서 새로운 사업동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 또한 신행팀과 교육팀을 조직해 회원들의 불교소양 확대를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불청 미래세대위원회는 조계종단이 구상 중인 것과는 별개임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현재 대불청 주축과 20대 회원 간의 연령대 차이로 인해 융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대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행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권 회장은 금산상업고 · 전주비전대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대불청에 입회했다. 전북지구 전주지회장(1999 · 2001 · 2012) · 전북지구회장(2013~2016)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캄보디아 대학 장학생 선발

천호월서희망재단, 4년 등록금 전액 지원



천호월서희망재단(이사장 월서)은 국제NGO '자비를나르는수레꾼' 장학사업 일환으로 10월 17일 캄보디아 대학 장학생 20명을 선발, 장학금을 전달했다. 프놈펜 왕립대, 프놈펜 국립 농과대 등서 선발된 학생들은 4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연 6회 정기세미나 참석 기회가 주어진다. **윤호섭 기자**

시민행복 위한 무등산 산신제

10월 23일, 무등산 장불재서 300명 참여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무등)는 10월 23일 무등산 장불재에서 '자연환경보호와 시민행복을 위한 무등산 산신대제'를 봉행했다. 올해로 8회째 맞는 무등산 산신제는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 동구불교협의회 부회장 증현 스님을 비롯한 동구지역 사암스님과 김성환 동구청장, 등산객, 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국대 경주캠, 실크로드 현장학습

9박10일간 육로 4,171km 답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코리아 실크로드 연구소(소장 김미정)는 10월 8~19일 '실크로드 해외 탐방대' 문명교류 현장 실습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관한 이번 탐방은 연구소가 운영하는 코리아 실크로드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탐방대는 9박 10일간 우루무치에서 시안까지 동쪽으로 거슬러 육로 4,171km를 답사했다. **신성민 기자**

본 지면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봉행 했던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를 회향하며

감히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승이 한 말씀 올립니다

한국 불교의 기둥이시며 중생들의 정신적 스승이신
400여 종단 큰스님!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시는 제방의 모든 불제자 여러분....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오늘날의 한국불교 현실에서
한국불교 역사상 이렇게 큰스님들을 모시고 금강계단을
봉행한 적이 없는 대작 불사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고통과
인욕의 나날이었지만 여법하고 장엄하게 대법회를 회향하였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오로지 불교의 위상과 부처님 세상을 위해
헌신한 스님들의 공덕으로 찬란한 연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합장 삼배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작불사를 회향하며 보잘것 없는 노승이 한마디 조언 하고자 합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타종교와 부딪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타종교의 훼방이 아니라 같은 불교집안에서 집요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가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습니다. 불교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박수를 치며 격려하고 감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무지막지한 방해를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골목 작패들이나 할 못된 짓을 하고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곳곳에 지속적인 항의 전화 등을 한다면 그런 항의를 받는 유관단체에서는 그 종단이나 단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불교 언론 이사장님과 사장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행사에 군소종단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방영이 됩니다. 어느 종단 행사는 초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취재하고 방영하고 알아서 착착 진행합니다. 그 종단이 아닌 다른 종단이나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무리 거대한 국제적인 행사라도 방영 신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교뉴스 몇초 조차 나오지 않는 현실을 운영자들은 알고 계십니까? 불교관련 일부 매체는 어느 종단이 싫어하면 눈길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비용만 주면 불교정법에 반하는 내용도 서슴없이 방영하면서 군소종단이나 불교단체의 행사가 아무리 방대하고 장엄한 행사라도 지상파 방송에서 조차 뉴스로 내보내는 행사인데도 불교집안에서는 눈먼 봉사요 모 종단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그 방송국들 및 뉴스 매체들은 모 종단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불교집안의 방송매체나 뉴스신문이 아닌 그 종단에 귀속된 그 종단의 매체인지 되묻고 싶으며 진정 그렇다면 운영상 불합리하고 포교에 불합리한 행사내용을 방영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불교행사 주최 측에서 요청해야만 취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불교행사는 스스로 찾아 취재하는 그런 시스템이 언제나 이루어 질까요. 포교현장이나 수행 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방영하는 운영체제가 아쉽기만 합니다. 운영자금은 군소종단들의 도움으로 일조하고 방영은 모 종단들의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과연 발전하는 불교의 내일이 있겠습니까? 한국불교의 반쪽도 아닌 한쪽 구석의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불교계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나 행동에도 배척만 하지 말고 타당성과 긍정적인 깊은 뜻이 있음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독자나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내용, 그것이 그것인 내용, 입만 열면 화합을 강조하고 자비심을 들먹이면서 편협으로 다양성이 실종되어 버린 그 어느 곳에서 부처님을 찾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큰 안목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종단이 아닌 한국불교 전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불교의 기본을 우리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불제자의 자세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승이 드리는 호소입니다.

불법을 외호하고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정진의 노력을 다하시는 많은 분들께 두손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가름할까 합니다

2016년 11월

노승 목탁 합장